

교회소식

◆ 광고

1. 오늘 2부 예배 후 당회모입니다.
2. 오늘 오후 예배 찬양은 샤론 찬양대입니다(연습2시:소망관).
3. 오늘 2부 예배 후 전교인 노방전도 합니다. 적극 참여해 주세요.

※교인동정

- 생일 축하합니다 : 이정자,이선자,경진형
- 식사대접: 이성중(신선화)집사 아들 결혼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기도제목

1. 영혼구원하고 제자삼는 교회 되게 하소서.
2. 신일교회에 큰 부흥이 있는 한 해 되게 하소서.
3.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 되게 하소서.
4.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 모임/청지기 안내

다음주일새벽찬양	금주 수요찬양	오늘 식사봉사	목장성경공부	전도특공대	중보기도학교	새가족성경공부
제 5여전도회	남3, 4목장	실버,제9여전도회	각 목장별로	수요일 오전10:00	목요일 오전 10:30	주일2부예배후(각교실)

◆ 11월 행사

- 2일 : 신일비전현신예배
- 9일 : 각 기관 월례회
- 16일 : 추수감사주일(추수감사절 한마음 축제)
- 30일 : 정기당회

◆ 11월 안내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권유순, 정영주

◆ 11월 헌금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박순국, 오승엽, 박유연, 소재익, 이진석, 곽복님, 이정자

새 가족

번호	성명	목장	인도자	주 소	전 화	소속기관

주일낮예배

1부 : 오전 9시 인도 안 주 모 목사
2부 : 오전11시 설교

♣ 사도신경..... 다같이

♣ 찬 송 다같이
새86장(구86장)
새310장(구410장)
손에 있는 부귀 보다

기 도 1부/원웅국 장로
2부/김명권 장로

성경말씀 인도자

출애굽기 32:1~14(구 P131)

찬 양 1부/호산나 찬양대
2부/할렐루야찬양대

말씀선포 설교자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자들

기 도 설교자

찬 송 ... 새290장(구412장) ... 다같이

헌 금 다같이

감사와 축복 인도자

♣ 찬 송..... 주기도문송..... 다같이

♣ 축 도 담임목사

광 고 담임목사

✚ 다음주 기도 1부 / 양문주 장로
2부 / 강일창 장로

♣ 표는 일어나 주시시오

주일오후예배

오후 3시 인도 최사무엘 목 사
설교 정 기 훈 강도사

예배선언 인도자

다함께 찬양을...

기 도 박진우 집사

성경말씀.....인도자

사도행전 11:19~30(신 P206)

찬 양.....샤론 찬양대

말씀선포설교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찬 양 ... 새600장(구242장) ... 다같이

광고/축도..... 인도자

✚ 다음주 기도/ 박석문 집사

수요기도회

오후 7:00 인도 안 주 모 목사
설교

목 도 다같이

찬 송 ... 새490장(구542장) ... 다같이

기 도 박은정 집사

성경말씀 인도자

누가복음 16:1~13(신 P122)

말씀선포 설교자

지혜로운 사람

목장찬양..... 남3, 4 목장

축 도 인도자

기 도 회

✚ 다음주 찬양 / 남5, 6 목장

✚ 다음주 기도 / 이해련 집사

Since. 1978

No 43. 2014. 10. 26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대전신일교회

금년목표 : 지역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고후 5:17)

1. 전파하는 교회(전도, 선교)
2. 가르치는 교회(교육, 훈련)
3. 치료하는 교회(예배, 상담)
4. 봉사하는 교회(섬김, 나눔)

◆교회를 섬기는 분◆

담임목사 안주모
부 목 사 최사무엘 최영준
전 도 사 김금분 정기훈
장 로 김제곤 강일창 박권용 우성한 김명권 양문주
남동균 원웅국 박근용 안재경
은퇴장로 이수영 정길원 정태수 윤선옥 우호선 김종남

찬양지휘 이육영 송명남 정기훈 윤현덕 조양순
반 주 조성일 김진영 강경숙 김애숙 박채리 조수정
기 악 윤현덕 김성욱 남정아 박채원

300-825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517번길 14(용전동)

TEL. (042) 622-7724(교회) 625-7724(목사관) 625-7723(당회실)

FAX. (042) 624-7721 www.no1shinil.org

초 대 합 니 다

1. 신일교회는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아픈 곳을 치료하는 교회, 섬김으로 봉사하는 교회로서 세상과 이웃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2. 신일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와 연대를 가지고 구제와 장학사업 등 사회복지에 힘쓰며 가정사역, 치유사역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어 세상의 빛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신일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주역인 자녀들을 위해 교사정예화와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교육현장을 혁신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젊은이를 위한 찬양예배 활성화와 새가족양육, 부부성경공부, 제자훈련 등 각종 평신도 훈련과정을 통해 건강한 교회 만들기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안 주 모

예 배 시 간

예 배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 9시, 2부/오전 11시	본 당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3시	본 당
	수 요 기 도 회	동절기/저녁 7시, 하절기/저녁 7시30분	본 당
	새 벽 기 도 회	새벽 5시	사 랑 관
		새벽 6시	사 랑 관
제 자 교 육	심 야 기 도 회	수요기도회 후	본 당
	수 요 전 도	수요일 오전 10시	소 망 관
	중 보 기 도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사 랑 관
	목 장 성 경 공 부	목장별로	각 교 실
	새가족성경공부	2부예배 후	각 교 실
주 일 학 교	유 치 부	주일 오전 9시	사 랑 관
	초 등 부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1층
	초 등 부 오후 예 배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중 고 등 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1층
	청 년 말 투 스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우리가 돕는 교회 및 기관

- 협력선교사** : 인도/윤지원, 터키/곽동신, C국/오성학, 국내이주민/김복경, C국/하요한, 필리핀/박원재, 프랑스/박신호, 아르헨티나/윤춘식, 파라과이/이태호, 러시아/배성운, 국내선교부/남후수, 미얀마/김민, 태국/정규호, 차양마이/인덕넷방송, 필리핀 추수신학교/오일환, 인도구조르트/전미숙
- 미자립교회** : 의령삼일교회/의령, 덕신영광교회/울주, 지탄사랑교회/영동, 눌인교회/청송, 원당교회/영동, 아하교회/대전, 십자성교회/해운대 군인교회, 뽕엘교회/창원 군인교회, 힐령교회/김해
- 학원선교** : 대전충청지역 S.F.C. 간사/이성운 김예정
- 기관선교** : 극동방송국/대전, 웅달병드롭민센터/서울, 북한어린이 사랑의 빵/한민족복지재단, 고신장학회
- 문서선교** : 기독교보사, 월간고신사, 코람데오닷컴사

향기로운예물

✚ 십일조헌금

강보라, 김춘조, 김금분, 김춘복, 남영순, 박상임, 박석문(정인선), 박순국(조수정), 박영숙A, 박유연, 박해진, 송정희, 신금순, 이선환, 이성은(박선숙), 이성자, 이영일(홍은미), 정기훈(최연옥), 정길원(정채순), 정옥근(이경미), 정인선, 정태수(김정희), 채재규, 최사무엘(서남지), 최영준(한은정), 최원나

✚ 감사헌금

강철원(이지영), 김건국(김성욱), 김금분, 김명권(정영주), 김연태, 김종남, 김근웅(최윤자), 박상임, 박석문(정인선), 박순국(조수정), 박유연, 박은정, 박해진, 성형건(송송희), 소재익(김미화), 안재경(정은숙), 안주모(조양순), 양문주(권유순), 오민욱, 오승엽(김영희), 오정석(정주희), 윤성욱(김신혜), 이인호(장지혜), 정기훈(최연옥), 정길원(정채순), 정옥근(이경미), 한영실, 황두순(박정자), 무영

✚ 선교헌금

강혜성(김성원), 김금분, 김춘복, 박석문(정인선), 박해진, 이진석(윤혜진), 정길원(정채순), 정옥근(이경미)

✚ 일천번제헌금

강혜성, 김건국(김성욱), 남동균(윤현덕), 남용민, 안스디(자인), 안영원(영인/혜린), 안재경, 양문주(권유순), 이승민(엄서운), 이영일(홍은미), 이재현(리화), 장은숙(소연/진형/진성), 정옥근(이경미), 무영

✚ 목적헌금

김종남, 실버팀

✚ 장학헌금

정옥근(이경미)

✚ 비전헌금

강혜성(김성원), 김춘복

목장현황

2014. 10. 13~10. 19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남1초원	1 김종남	교 회	2	13,000		교 회	여3초원	5 김채욱	교 회	1	3,000	25	교 회
	2 강일창	교 회	2	9,000	30	교 회		6 고숙자	교 회	2	6,000	32	교 회
남2초원	3 박근웅	교 회				교 회	여4초원	7 곽복남	교 회	3	10,000	6	교 회
	4 김명권	교 회				교 회		8 성영옥	교 회	3	10,000	70	교 회
남3초원	5 남동균	교 회	1	5,000	73	교 회	여5초원	9 구남량	교 회	3	9,000	12	교 회
	6 안재경	교 회	1	5,000	40	교 회		10 정혜민	교 회	1	5,000	5	교 회
남4초원	7 오승엽	교 회	2	5,000		교 회	여6초원	11 함현숙	교 회				교 회
	8 박순국	교 회	1	4,000	3	교 회		12 김복금	교 회	1	5,000	30	교 회
남5초원	9 조성철	교 회	2	5,000	6	교 회	여7초원	13 정옥자	교 회	2		20	교 회
	10 이인호	교 회				교 회		14 이경미	교 회	3	20,000	60	교 회
여2초원(실버)	1 김명자	교 회	3	13,000	40	교 회	여8초원	15 신윤경	교 회	1	10,000	28	교 회
	2 김명숙	교 회	2	7,000	40	교 회		16 김춘복	교 회	2	10,000	5	교 회
여2초원(실버)	3 권월성	교 회	4	13,000	110	교 회	여9초원	17 한은정	교 회	4	4,000	43	교 회
	4 정채순	교 회	3	10,000	100	교 회		18 서남지	교 회	4	10,000	28	교 회

금주의 말씀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자들

출애굽기 32:1~14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곳에 올라간 사람이 40일이 지났음에도 내려오지 않는 것은 분명히 죽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몬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지 채 40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기들의 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1. 현실에 항상 불만을 품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원망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출애굽이 시작될 당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무후무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바다를 걸어서 간 것입니다.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그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이어서 15장에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도 잠깐입니다. 저들이 수르 광야마리에는 곳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물을 마셔보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찬송하던 그 입으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15:24를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민수가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저들을 징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이 깨진 후에 다시는 원망하지 말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교훈을 잊지 말고 그 곳의 이름을 '디베라' 즉 불사름의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베라의 이름을 하지 며칠도 지나지 않았 습니다. 아브라함은 만민에 대한 불평입니다. 자기들은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리든지, 생선,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같은 것을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가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절정에 도달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열두 정탐꾼 중, 열 정탐꾼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불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또한 민수가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 목마르게 되자 모세를 원망하여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다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원망한니까? 구원과 멸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도대체 왜들 그러냐고 물을 들어 던질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같은 모습은 얼마든지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간격과 큰 기사와 이적을 체험한 바로 뒤에 또 다시 원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불야할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라고

2. 그 마음이 항상 애굽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사는 동안 그들에게는 애굽정신, 애굽사상, 애굽문화가 너무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으나 몸만 나온 것이지 마음과 정신은 애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만 열면 애굽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원망한 말입니다. 출애굽기 14:12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슴에 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원망한 말입니다. 출애굽기 16:3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갈에 앉아 있던 때와 먹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와 손에 죽었다리면 좋았을 것들이니 우리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이 만나만 먹는 것에 싫증이 나서 원망하는 말입니다. 민수가 11:4-5에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기를"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원망한 말입니다. 민수가 14:3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라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시로잡하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누구보다 그들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질까 염려해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했던 곳입니다. 날마다 심한 고역으로 괴로워했던 곳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이 애굽에 가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15,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3.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신을 찾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일이 두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과 분열왕국 시대에 북쪽의 지도자였던 여로보암 1세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러 올라가는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뽕엘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 섬기도록 하였 습니다(왕상 12:28-32). 이몬이나 여로보암 1세는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출 32:4, 왕상 12:28)라고 똑 같은 말을 했습니다. 두 가지 사건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 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오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몬에게 물려와 청하였습니다. "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상향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보다 눈에 보이는 신을 선택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현 대인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신이 황금의 신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스라엘 백성을 인도 하셨던 하나님을 대신하여,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황금이면 모든 일이 다 해결 되며 자신에게 위인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금만능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황금을 하나님인 양 받들며 모시며 황금 우상의 노예가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이나 혹은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나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재물이란 맘몬이라고 불리우는 데, 오늘날의 우상은 바로 이맘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과 물질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까?